

# '공항 민폐' 된 스타들 '공항 패션' 홍보

### 주로 공항 혼잡시간대 출국... 인근 출입문 '아수라장' 당일 취소건 많아 '예약부도수수료' 제도까지 도입

"누가 와요" "잠깐만 지나갈게요." "봤어 봤어 너무 예쁘다" "여기에 몰려 계시면 안돼요."

지난달 28일 오전 9시에 인천공항 출국장 3번 게이트 앞 횡단보도에서는 한류스타 A씨를 취재하려는 사진기자들과 고가의 카메라를 든 앳된 얼굴의 팬들 출국장으로 들어가려는 인파가 뒤섞여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한류스타 A씨는 의류회사의 협찬으로 진행되는 이른바 '공항패션'을 선보일 예정이었다

공항패션을 홍보하는 대행사 측은 이메일을 통해 A씨가 명품브랜드 행사 참석차 홍콩으로 출국하며 공항에는 9시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했다.

20분이 지나 검정색 밴 차량에서 내린 A씨는 뺨안 피부에 검은 생머리, 흰색 티셔츠, 청바지, 갈끔하게 정리된 베이지색 코트와 은색 운동화로 한껏 멋을 부린 상태였다. 이윽고 본인을 기다린 기자들과 팬들에게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며 횡단보도를 건넜다. 출입문 앞에서 손 하트 그리기 등의 다양한 포즈도 잊지 않았다

수많은 카메라가 그녀를 향해 플래시를 터트렸고, 일부 팬들이 심지어 게이트를 통과한 A씨를 따라 들어가 복새롱 장면이 계속 이어졌다.

민약의 사고를 막기 위해 공항 보안요원들은 뛰어들어오는 팬들을 제지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하지만 고가의 카메라를 든 팬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리 예매한 항공권을 이용해 페스트 트랙으로 빠르게 면세구역으로 향했다.

이들은 면세구역까지 들어가 스타의 일거수 일투족을 사진으로 남겼다. 스타와 함께 해외로 출국까지 감행할지는 미지수였다.

공항 당국에 따르면 "작년 1분기에 출국 당일 취소하는 고객이 3.7%로 많이 방지 차원에서 '예약부도수수료'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지난해 11월 11일부터는 대상자를 확대해 기내 탑승구까지 갔더라도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즘은 수수료 때문인지 당일 취소보다는 함께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톱스타 A씨가 공항패션 홍보로 사용한 시간은 여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혼잡 시간(07시~11시)대로, 이 시간에는 미주와 유럽 중국 노선이 가장 많이 출발해 하루 여객 중 30% 가까이가 이용한다.

또 출국장 3번 게이트는 대한항공의 출국장과 맞닿은 문으로 여객들의 입출입이 매우 빈번하다.

공항 안내요원으로 근무하는 류모씨는 "해외 출국하는 스타는 일주일 평균 15명 정도인데 이중 대다수가 혼잡시간대에 출국한다"면서 "이로 인해 여객들이 다른 통로로 출국장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달려오는 팬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딪히는 사고도 있었다"고 전했다.

사진을 찍으려던 사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국장까지 여객들의 기념촬영 정도는 용인해주고 있지만 면세구역에서의 촬영은 금지되어 있다.

인천에 사는 김모씨는 "이제는 공항에서 연예인을 봤다고 신기한 일도 아니지만 수많은 팬이 스타를 따라 뛰어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다칠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공항패션을 홍보하는 대행사 관계자는 "공항패션이 의류 브랜드를 협찬·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인 만큼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 팬들에게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사진기자협회 관계자는 "공항패션의 시작을 2010년 전 후로 기억한다"며 "연예기사를 다뤘던 일부 인터넷 매체들이 의류 브랜드와 홍보대행사 측에서 돈을 받고 취재해주던 관행이 '공항패션'이라는 카테고리를 형성해 포털사이트 등에서 관심을 받고 메인뉴스로까지 표출됐던 것이 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당시 팬들은 순수한 팬심이었지만 요즘은 그런 사진들이 중국 포털북 시장에서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 팬을 가장한 업자들이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는 실정"이라며 "공항패션 취재 때문에 불편을 겪는 여객들이 많다는 기자들의 의견이 있어 협회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뉴스



넷플릭스, 브래드 피트 '워머신'  
윌 스미스 '브라이트' 티저 예고편·스틸컷 공개

넷플릭스(Netflix)가 2017년 상반기 공개 예정인 브래드 피트 주연의 '워머신(War Machine)'과 윌 스미스 주연의 '브라이트(Bright)'의 티저 예고편과 스틸컷을 2일 첫 공개했다.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봉준호 감독의 신작 '옥자'에 이어 두 작품 모두 할리우드 유명 감독 및 스타 배우들의 출연이 예정되어 있어 2017년 영화계 주요 기대작으로 주목 받고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워머신'은 현 시대를 위한 블랙 코미디 영화다. '애니멀 킹덤'의 데이비드 미코트 감독이 미국 장군이 겪게 되는 인생의 파고를 현실과 패러디의 미묘한 경계 사이에 담아냈다.

주인공인 브래드 피트는 타고난 리더지만 과한 자신감으로 인해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4성 장군역을 맡았다. 아프가니스탄의 나토(NATO)군을 지휘하는 사령관으로 성공기도를 달리는 인물이다.

'워머신'은 기자인 마이클 헤이스팅스의 저서 '더 오퍼레이터스(The Operators)'가 제목: 'The Wild and Terrifying Inside Story of America's War in Afghanistan'가 원작이다.

윌 스미스 주연의 영화 '브라이트'는 태초부터 인간과 오크 엘프와 요정이 공존했던 기묘한 평행세계를 배경으로 두 형사인 워드(윌 스미스 분)와 자코비(조엘 에지던 분)의 이야기를 그린 액션 스릴러다. '수어사이드 스쿼드', '엔드 오브 왓치의 데이비드 에이어가 감독 및 프로듀서를 맡았다.

'브라이트'는 올 하반기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다.

/뉴스

## 한국프로축구연맹, K리그 2017 시즌 새롭게 바뀌는 규정은

2017년 프로축구 K리그 개막이 이를 앞모으고 다가왔다.

올 K리그는 크고 작은 변화를 시도한다. 이를 통해 경기의 질을 높이고 축구 팬들을 그라운드로 끌어모으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17년 K리그 이렇게 달라진다는 주제로 미디어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비디오 레프리(VAR) 시스템 도입이다. 이 제도는 이미 국내 프로야구와 프로배구 프로농구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K리그에서도 비디오 판정을 볼 수 있다.

IFAB(국제축구연맹)는 지난 2016년 3월, 축구의 공정성과 결정적 장면(골

### 후반기부터 '비디오 판독' 시범운영... '물먹는 시간' 도입

상황 등이 축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VAR 시스템을 도입했다. VAR 시스템은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그라운드 밖 '제외 부심'이 주심과 협의해 골, 페널티킥, 직접퇴장, 제재선수 확인 등 결정적 상황의 판정을 내린다.

VAR은 주심하고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부심과 대기심은 청취만 할 수 있다. 결정은 주심만 할 수 있으며 선수나 감독, 팀에서 VAR 판정을 요구할 수 없다. 이미 지난해 12월 국제축구연맹(IFAB) 클럽월드컵에서 VAR이 시행됐다. 올 5월 한국에서 열리는 FIFA U-20 월드컵 때에도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 규칙도 바뀐다.

K리그를 비롯한 모든 프로축구 리그는 IFAB가 제정 및 개정하는 경기규칙을 따라야 한다.

개정된 경기규칙은 네 가지다.

먼저 페널티 에어리어 내의 결정적 득점기회를 파울로 저지할 시 징계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페널티킥+퇴장+사후징계' 처벌이 내려졌지만 올 시즌부터는 파울의 특성과 강도 고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퇴장 대신 경고 조치가 가능해졌다.

페널티 킥 관련 규정은 더 엄격해진다.

규정상 금지되는 불법 페인팅(킥 직전의 속임 동작)으로 특점할 경우에는 기존에 다시 차도록 했지만 올 시즌에는 키키에게 경고와 함께 페널티킥도 취소된다.

오프사이드 판정도 소폭 변화가 생긴다.

오프사이드 여부를 판단할 때 선수의 손과 팔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킥오프시 첫 터치에 진행 방향 제한도 사라진다. 기존에는 공이 전방으로 움직여야했지만 올 시즌부터는 어느 방향으로 공을 차도 무방하다. 유니폼 앞판과 테이핑의 색깔도 통일해야 한다.

이와 함께 휘터 브레이크(볼 먹는 시간)도 도입된다. 심판 재량에 따라 가능하다.

/김민근기자

### 남진, 'SNS 허위사실' 사이버수사대 의뢰

가수 남진(71)이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악성 '남진 사칭 글'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남진의 공연제작사 SC엔터테인먼트(대표 이시찬)는 2일 "특정 대선후보를 비방하며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은 가수 남진과 전혀 상관없는 타인의 악의적인 생각이다. 이는 명백하게 명예훼손이며, 허위사실 유포"라고 밝혔다.

남진 "회사에서는 해당 글이 올라와 있는 블로그 주인에게 게시물 삭제 요청을 보내 현재 삭제된 상황"이라며 "그러나 이를 복사한 글들이 SNS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감당이 안된다. 삭제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현재 거주지인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사이버수사대를 직접 찾아가 수사를 의뢰해놓은 상태다.

해당 글은 남진이 특정 공인 및 유명인들을 언급하며, 비판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누군가 남진을 사칭 "호남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켜줬더니 문재인이 깔시한다" 등의 내용이다.

남진은 "지역에 상관없이 10여년 넘게 콘서트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본의 아닌 지역감정이나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며, 누구보다 화합을 중요시 하는 가수"라고 강조했다.

/뉴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